제3절 기독교

1. 광양지역의 기독교 전래(1890년대 후반~1910년)

사진8-120 : 1887년 로스가 번역하여 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서 「예수성교전서」

초기 광양지역의 기독교 선교사는 곧 미국남장로회의 호남선교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먼저 남장로회의 한국선교사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해외 선교회의 한국에서 선교가 시작된 시점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선교사의 입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북장로회와 미국북감리회는 1884년, 호주장로회는 1889년, 영국성공회는 1889년, 미국남장로회는 1892년, 엘라딩기념선교회(침례교)는 1895년, 미국남감리회는 1896년, 캐나다장로회는 1898년, 안식교회는 1904년, 동양선교회(성결교)는 1907년, 구세군은 1908년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호남의 기독교와 직접 관련된 미국남장로회의 한국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자. 1891년 10월 언더우드(H. G. Underwood, 원두우)와 윤치호의 강연을 듣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2년 10월에 여선교사 데이비스(Miss L. F. Davis), 11월에 남선교사 테이트(L. B. Tate, 최의덕) · 레이놀즈(W. D. Reynolds, 이눌서) · 전킨(W. M. Junkin, 전위렴) 등과 여선교사 테이트(Miss M. S. Tate, 최마태) · 레이번(Miss L. Leyburn) · 볼링(Miss P. Bolling) 등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들을 필두로 하여 이후 1893년 벨(E. Bell, 배유지), 1894년 해리슨(W. B. Harrison, 하위렴), 1896년 오웬(C. C. Owen, 오기원), 1899년 불(W. F. Bull, 부위렴) 등 선교사가 속속 내한하였다.

사진8-121 : 1887년 언더우드 목사의 사저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1896년 호남 선교에 나서기로 결정한 남장로회에서는 이듬해 나주에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곧 철수하고, 그 대신 1898년 목포에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이어 1904년 광주에도 선교부가 개설되었으며, 다시 1905년 나주, 1910년 순천에도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광양지역은 순천선교부의 관할 아래 소속되었다.

하지만 광양지역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고 교인들도 나

타났다. 이 지역의 초기 기독교사에 대하여서는 자료나 연구에 따라 일치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 우선 한국장로교회사 연구의 기본자료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상)』(1928)에 나타난 광양지역의 교회 설립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교회	관련 기록
1907	신황리(新黃里)교회	광양군 신황리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한태원이 이 곳 신자 조상학의 전도를 듣고 광주 양림에 함께 가서 선교사 오기원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두 사람이 본리(本里)에 돌아와 구황리서재(舊黃里書齋)에서 전도할새, 박희원 · 서병준 · 허준규 등 9인이 주를 믿은 후 합심전도한 결과 신자가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난지라. 합심연보하여 예배당 8간을 신축하니라.
1908	광양읍(光陽邑)교회	광양군 읍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선교사 오기원과 조사(助師) 지원근 · 배경수 등이 이곳에서 전도할새, 순천 조상학이 와서 돕되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 후 전도인 박응삼이 가족을 데리고 왕래하며 열심전도하므로 김윤석 · 박정진 등이 믿고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인 강성봉, 조사 장현중, 조의환 · 정자삼 등이 계속 왕래하여 교회에 대하여 다대한 세력을 공(供)하니라.
	웅동(熊洞)교회	광양군 웅동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조상학의 전도로 본리(本里) 사람 서병준이 믿고 열심전도한 결과 19호(戶) 1촌(村)이 모두 예수를 믿고(歸道) 신황리에 왕래하며 예배하더니 본리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를 분립하니라.
	대방리(大芳里)교회	광양군 대방리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서한봉이 한태원 · 박희원이 전도를 인하여 믿고 형제의 가족과 정기영의 가족으로 신황리에 왕래하며 본리(本里)에 전도하여 신자가 증가하므로 가옥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분립하니라.
1909	백암리(栢岩里)교회	광양군 백암리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김평장 · 장석지 등이 믿고 신황교회에 내왕하다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를 분립하니라. 선교사 고라복, 집사 장석지 · 김인주가 시무하니라.
	섬거리(蟾巨里)교회	광양군 섬거리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본리(本里) 장주환이 믿고 신황교회에 내왕하더니 본리에 신자가 점증되므로 예배당 6간과 사숙을 신축하고 선교사 고라복은 가옥을 매수하여 교역자의 사택으로 공헌하니라.
	지랑리(旨郎里)교회	광양군 지량리교회가 성립하다. 이에 앞서 본리(本里) 강대오가 신황리교회에 내왕하며 전도하여 예배당을 신축하고 그 후 강대오는 만주로 이거하매 김순권이 교회를 위하여 다대히 노력하니라.

위의 기록에 따르면, 광양지역 최초의 교회는 1907년에 세워진 신황리교회인 셈이다. 그리고 웅동 · 대방리 · 백암리 · 섬거리 · 지랑리교회 등은 신황리교회에 다니던 인근 마을의 교인들이 자기 마을에 세운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또 선교사 오웬과 코이트(R. T. Coit, 고라복), 조상학 · 지원근 · 배경수 등 인근지역의 교인들이 광양지역 복음화에 기초를 닦았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과는 다르게 교회의 설립 시기를 잡기도 한다. 예컨대 1908년 세워진 것으로 나오는 웅동교회의 시작을 1904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교회 설립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예컨대 단순한 '신앙공동체'도 교회로 볼 것인가, 독립된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장로가 장립되어 당회가 조직된

사진8-122 : 1904~1908년경 웅동교회(우측하단 가옥)

'조직교회'라야 교회로 볼 것인가 등에 따라 그 설립 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각 개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교회 설립의 기준은 각 개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

최근 광양시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조사한 『광양시기독교선교100년 사료조사보고서』에 실린 「기념패」사진을 보면 웅동교회 '창립일'이 1904년 5월 4일로 되어 있으며, "1905년 11월 3일 교회창립으로 순천노회사에는 기록하고 있으나 최초의 교회 형태의 예배는 순천노회와 전라노회 소속 이전의 장로교 합동공의회 시대인 1901년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야소교장로회총회에서 펴낸 『야소교장로회연감』(1940)에는 웅동교회가 1908년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웅동교회의 경우만 보아도 그 설립 시기에 대하여 1901년설(『보고서』) · 1904년설(「기념패」) · 1905년설(『순천노회사』) · 1908년설(『사기』·『연감』)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장로교 계통의 신문인 「그리스도신문」 1898년 11월 3일자에 보면, 이 무렵 이미 광양지역에 교인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전라남도 광양 백성들이 갈린 관찰사의 선치(善治)를 칭송하야 말하되 … 갈린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열씨가 백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폐막을 다 덜어버리고 못된 풍속을 개정하다가 올라가신 후에 밝으신 상주(上主)께서 그 백성을 불상히 여기사 우리 대황제폐하를 도우사 애민하는 신하를 갈희샤 민씨를 보내셨으니… 그곳 백성들이 편지하였기로 기재만 하노라"

이 글을 쓴 이는 광양지역의 기독교인이 틀림없다. 우선 '상주(上主)', 즉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을 썼으며, 이 글을 그리스도신문사로 보냈고, "그곳 백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교인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지 궁금하지만,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같은 신앙공동체 역시 넓은 의미의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양지역 기독교의 역사는 1890년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8-123 : 신황교회

한편 1907년 북감리회와 남장로회 사이에 선교지역 분할협정이 맺어졌는데, 공주를 분계점으로 하여 북쪽은 북감리회가, 남쪽은 남장로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 1909년 새롭게 맺어진 분할협정에서 남장로회는 충남 대전 · 부여 · 목천지역과 전남 · 전북 · 제주지방의 선교를 맡게 되었다. 물론 이 분할협정은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두 교파가 당시에도 가장 세력이 컸었으므로 호남지방은 사실상 장로교의 '아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교회의 발전과 시련(1910년~1945년)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따르면, 장로교의 초기 역사를 계발시대(啓發時代, 1865~1892) 공의회시대(公議會時代, 1893~1906) 독노회시대(獨老會時代, 1907~1911) 총회시대(總會時代, 1912~1923)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07년 전라대리회(全羅代理會)가 조직되었다가 1911년 전라노회(全羅老會)로 개칭하였고, 다시 1917년 전남노회와 전북노회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22년 전남노회에서 다시 순천노회가 독립하였다. 이 때 광양지역은 순천노회의 '제2시찰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1923년 제1회 순천노회가 광양읍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910년 이후 광양지역 교세를 알려주는 분명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다음의 두 자료를 통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1968)를 살펴보자.

연도	교회	관련 기록
1919	학동(鶴洞)교회	광양군 학동교회가 설립되다. 이에 앞서 지절[랑]교회 열심신자 구경지가 본리(本里)에 이주한 후 박노주와 더불어 합심전도하여 예배당 3간을 건축하고 수십의 교우가 예배하였는데 선교사 노라복, 영수 구경지, 집사 박노주 · 이석용이 교회를 인도하였다.
	오사리(烏沙里)교회	광양군 조(오)사리교회가 설립되다. 이에 앞서 선교사 노라복이 전도대 박희원 · 정자삼 · 장현중 등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최아현이 도(道)를 듣고 믿고 전도하므로 신자가 많이 일어나더니 그 후에 최아현이 점점 낙심(漸落)하고 교회가 부진하므로 선교사 노라복이 조사(助師) 팍희원을 파송하여 거주하며 시무하게 하였다.
1920	대인도(大仁島)교회	광양군 태인도교회가 설립하다. 이에 앞서 이영국은 본도(本島)의 노인인데 전도인에게 도를 듣고 신심이 발생하여 비단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즉시 전도하였고 신황리 교인 등의 내조와 조사 서병준의 2년간 시무로 교회가 성립되었다. 열심히 믿는 과부 임씨는 자기의 3간 가옥을 예배당으로 바쳤으며, 선교사 노라복과 집사 정충헌 · 정시운 등이 교회를 인도하였다.

연도	교회	관련 기록
1920	금호도(金湖島)교회	광양군 금호도교회가 설립되다. 이에 앞서 김성수 · 강학천 등이 태인교회 조사 서병준에게 전도를 듣고 있을 때 강학천은 3부자의 가족이 모두 입교하여 자기의 저택에서 예배하다가 머지않아 그 가족을 전부 예배당에 바쳤으며 선교사 노라복, 집사 강학천이 교회를 인도하였다.
1921	원당리(元堂里)교회	광양군 원당리교회가 설립되다. 이에 앞서 선교사 노라복과 정자삼 · 정영호 · 박희원 등이 본리(本里)에 와서 전도한 결과로 이보석 및 그 누이동생(姉弟) 이보홍, 장상순 등이 믿어 이보석의 방에서 반년간 예배하다가 교인들이 합심연보하여 4간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는 조의환 · 조상학이 목사로 시무하였다.
	광포리(廣浦里)교회	광양군 광포리교회가 설립되다. 이에 앞서 순천 선교사와 동행 3~4 신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서 한태현 외 몇 사람이 믿어 정운만 집에서 1년간 회집하고 있는 중 이양권이 내왕하며 인도하였고, 사숙 교사 김성봉이 열심교수하여 교회에 막대한 유익이 되었으며, 선교사 노라복과 집사 정운회 · 한대현이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학동 · 오사리 · 대인도 · 금호도 · 원당리 · 광포리교회 등이 이 시기에 세워졌으며, 선교사 낙스(R. Knox, 노라복)과 서병준 · 정자삼 · 정영호 · 박희원 등 인근지역의 교인들이 교회 설립을 위하여 애썼음도 알 수 있다.

이어 『야소교장로회연감』을 보면, 관동 · 수평 · 금호 · 광동중앙교회 등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는 기존 교회가 명칭을 바꾼 사례도 있다. 이 자료는 1940년 현재 광양지역에는 13개의 장로교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기』에 나오는 13개 교회와 같은 수이다. 따라서 교회수로만 본다면 1920년대 이후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교인수는 계속 늘어났을 것이다.

교회	주소	창립시기	목사	장로
광양읍교회	광양읍 내리	1908년 9월 15일	선재연	강윤석(1938년 10월 30일 장립)
대방동교회	광양군 옥룡면 용곡리		선재연	
웅동교회	광양군 진상면 웅동리	1908년 10월 20일	안봉(덕)윤	
광동중앙교회	광양군 진상면 지원리	1940년	안덕윤	김순권(1923년 9월 20일 장립) 이보호(1924년 5월 13일 장립)
신황교회	광양군 진상면 황죽리	1908년 7월 18일	안덕윤	박희원(1919년 8월 10일 장립)
원동교회	광양군 다압면 원동리			
관동교회	광양군 다압면 관동리			
수평교회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백암교회	광양군 옥곡면 백암리			
학동교회	광양군 진월면 학동리			
오사교회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			
금호교회	광양군 골약면 금호리			
태인교회	광양군 골약면 태인리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한국 교회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을 펴기 위하여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굴복하여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다.

특히 1940년에는 '순천노회 박해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지역 교인들이 은연 중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한 일제는 목사와 장로 등 교인들을 마구 잡아들였던 것이다. 이들 중 순천노회에서는 이기풍 · 박용희 목사, 손양원 전도사, 황두연 장로 등 많은 교인들이 옥고를 치루었다. 또 광양 출신 양용근 목사는 그만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해방 후에도 시련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쟁 중인 1950년 광양 출신인 안덕윤 목사, 승주 출신이지만 광양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조상학 목사가 순교의 피를 뿌렸다. 이들의 순교는 광양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값진 희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광양고을의 기독교 순교자

가. 양용근(梁龍根) 목사

사진8-124 : 양용근 목사

양용근 목사는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 694번지(오추마을)에서 출생(1905~1944)하였으며 1912년 진상보통학교에 입학, 1930년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고국에 돌아와 왜정시대 관직등용을 수차례 종용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라사랑과 민족혼의 건강함과 천국 복음 선교에 몸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1939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고향마을인 진월면 오사리 소재「오사교회 육영학숙」교장에 취임. 1941년 일본정부(왜경)에서 양용근 목사가「대일본제국 법과대학 출신자가 신사참배 거부, 국기경례 거절, 12시 묵념불이행, 궁성요배도 죄악이다」는 언행을 하며 대일본제국을 모욕한 죄로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3년 6개월 옥고를 치르는 동안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다 1944. 12. 4 모진고문으로 형무소에서 순교하였다.

나. 안덕윤(安德潤)목사

안덕윤 목사는 진상면 지원리 원당마을에서 출생(1897~1950).「순천

성경학교」 졸업 후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자 순교자 양용근 목사등 4명이 함께 모여 진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서로 언약을 하였으며 1939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순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광양 중앙교회 · 곡성교회를 거치는 등 전국교회 활동 시작하였다.

1943년 목포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천황은 사람이며 일본은 곧 망한다」라는 설교로 왜경에 체포되어 옥살이 2년 5개월만에 해방을 맞았으며 1950년 9월 28일 전북 김제 「대창교회」재임 중 「김제지역 대한민국 만세사건」에 참여 · 쫓겨가는 북한군 패잔병에게 죽창으로 찔려 순교하였다.

사진8-125 : 안덕윤 목사

다. 조상학(趙尙學) 목사

조상학 목사는 전남 승주군 송광면에서 출생(1877~1950년)하였으며 오웬 선교사의 지사 지원근의 전도를 받아 1909년 배유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928년 진상면 「신황교회」초대 목사로 임명되었는데 1940년 왜정시대 신사참배의 거부로 왜경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사진8-126 : 조상학 목사

6 · 25동란이 일어난 해인 1950. 9. 28일 순천 덕양교회 목사로 재임 중에 북한에 대항하여 교회를 사수하며 항거하다 교회인근 미평공동묘지로 끌려가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어 순교하였다.

4. 장로교단 분열과 교파별 교회 현황(1945~2003)

호남지방의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광양지역도 장로교의 '아성'이었다. 하지만 장로교단 안에서 분열이 거듭되었으며, 이 여파는 광양의 장로교회들에게도 미쳤다. 우선 1948년 예수교장로회(예장)에서 고신파(고신)가 분립하였고, 1953년 다시 예장에서 기독교장로회(예장)가 분립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예장마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통합 · 합동 · 기장 외에도 많은 교단들이 장로교 안에 나타났고, 이에 따라 호남지방의 각 교회들도 이합집산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아울러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 순복음 · 안식교 · 구세군 · 여호와의 증인 · 통일교 등의 교파도 들어왔다. 특히 광양제철이 세워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교회 역시 성장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1996~2001년까지 통계를 보면, 연평균 5%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예배당	119	119	129(+8%)	137(+6%)	144(+5%)	157(+7%)
교직자	135	137(+1.5%)	157(+15%)	165(+5%)	177(+7%)	180(+7%)

자료 : 「2002년 광양시통계연보」 (광양시. 2002)

사진8-127 : 광양시 기독교 조찬 기도회(1997.5.27)

사진8-128 : 웅동교회(2002년)

이제 2001년 현재 지역별 교회수를 살펴보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지역의 교회와 교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조사의 주체 · 시점 · 방법 · 기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통계자료에 보이는 교회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 자료	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광양시통계연보 (2001. 12)	157	52	3	8	10	8	7	3	4	34	24	4
광양시교회현황 (2001. 12)	154	55	2	7	10	9	8	4		40	15	4
종교단체현황 (2001. 1)	144	42	3	8	10	9	7	4	4	36	17	4

자료 : 「2002년 광양시통계연보」 (광양시. 2002) / 「광양시교회현황」. 광양시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광양시기독교선교100년 사료조사보고서』 (광양시. 2003) / 「종교단체현황」 (광양시 문화홍보실 제공)

다음으로 2001년 1월 현재 각 교파별 교회 · 교직자 · 교인의 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수											교직자수		교인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안식교	구세군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계	115	7	3	5	3	3	1	2	1	4	144	161	16	5,746	9,727
												177		15,473	
광양읍	34	1	1	1	1	1				3	42	42	1	2,412	3,973
광영동	11	1		1	1	1		1		1	17	22	5	779	1,363
골약동	4										4	7		297	453
중마동	26	2	1	3	1		1	1	1		36	41	6	1,037	1,621
태인동	3	1									4	7	1	215	378
다압면	2		1			1					4	4	2	52	123
봉강면	3										3	2	1	117	258
옥곡면	8	2									10	10		125	354
옥룡면	8										8	9		184	397

	교회수											교직자수		교인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안식교	구세군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진상면	9										9	10		296	414
진월면	7										7	7		232	393

자료 : 「종교단체현황」(광양시 문화홍보실 제공)

한편, 2002년에는 「광양시기독교선교1백주년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광양지역 '최초의 교회'라는 웅동교회 복원과 백주년기념관 및 순교기념관 건립, 『광양시기독교백년사』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필 : 광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한규무

제4절 천주교

광양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933년이었다. 같은 해 4월 1일에 순천본당(현 순천 저전동 본당) 정수길(鄭水吉) 신부의 지도로 강종인(姜宗仁)·박용섭·우이현 등이 칠성리에 순천본당 관할 광양공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폐쇄되었고, 같은 해 8월 31일에 광양서초등학교 교사 안병호가 인서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 광양공소를 다시 개설하였다. 당시 천주교신자는 안병호와 그의 가족 6명·강종인·박용섭·고 프란치스코 등 9명이었고, 예비신자는 박현수(朴現洙)와 이강우 등 2명이었다. 1935년 9월 26일에 광양공소의 첫 영세식이 거행되었는데 박현수가 광양공소의 첫 영세자가 되었다. 이어 1936년 4월 22일에 5명의 예비자를 대상으로 광양공소의 두 번째 영세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1936년 3월 31일에 박현수가 광양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어 1937년 8월 1일에는 전 프란치스코가 후임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938년 2월 1일에 취업을 위해 공소회장 전 프란치스코가 도일(渡日)한 후 공소회장직이 공석이 되고 신사참배 등 일제말기 조선총독부의 극심한 탄압과 규제에 신자수도 감소하여 광양공소는 다시 폐쇄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광양지역의 천주교 선교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1954년 7월 1일에 광양중·농고 교장으로 부임한 박현수가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교장 사택에서 공소예절을 드리면서 광양공소는 다시 활로를